통도사 산중총회 성원미달로 무산

3월 15일 164명 참석, 빠른 시일 내 다시 열기로

4월 이후 산중총회 열릴 듯
방장 유고 사태 불가피해
노천문도회장 현문 스님 선출
영배 스님에게 산중총회 요구

영축총림 통도사 차기방장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성원미달로 무산됐다.

통도사는 3월 15일 경내서 영축총림 통도사 산중회의를 개회하려 했으나 전체 구성원 461명 중 과반수 이상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예정된 오후 2시까지 77명이 출석했으며, 과반수를 넘기기 위해 30분가량 기다렸으나 164명을 끝으로 성원 되지 않았다.

결국 참석자들은 산중총회 대신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서는 산중총회 홍보에 주지 영배 스님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영배 스님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산중총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현재로써는 4월 1~3일간 봉행되는 보살계 이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이후에는 노천문도회 소속 120여 스님들이 보광선원에 모여 회의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임했다. 문도회장은 자장암 감원 현문 스님, 수석부회장은 정우 스님(구룡사 주지)이 맡았으며, 부회장은 명신 · 동주 스님이다. 분과위원과 운영위원 임명은 회장단에 일임했다. 또한 노천문도회는 다음 산중총회 시일을 앞당겨 달라는 요지의 산중총회 요구서를 영배 스님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산중총회 구성원 120여 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전체 3분의1인 154명을 채워 산중총회법에 따른 소집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산중총회법 제5조에는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산중총회를 소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총림법에 따르면 방장은 산중총회서 추천하고 중앙종회서 추대한다. 따라서 영축총림이 오는 27일 개원하는 중앙종회 전까지 방장 추천을 하지 못하면 방장 유고 사태가 불가피하다. 현방장 원명 스님 임기는 3월 25일 만료된다. 특히 영축총림은 과거 前방장 월하 스님 입적 후 수년간 방장을 선출하지 못한 바 있어 또다시 총림 내 혼란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성미 기자

백년대계본부 내달 공식출범 예정

4월 13일 한국문화연수원서 종단지도부 대중공사
2017년 첫 사부대중공사 더불어 서울서 출범식

조계종 제34대 집행부의 마지막 핵심 사업인 백년대계본부가 내달 공식출범한다. 이에 따라 본부장 선임을 비롯해 아직까지 조직되지 않은 위원회 구성 등 관심이 쏠린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3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서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백년대계본부 출범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서는 백년대계본부 출범에 앞서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할 종단 주요소임자 대중공사를 4월 13일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서 개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총무원장 · 종회의장 · 호계원장 · 교육원장 · 포교원장 · 각 부실장 · 교구본사주지 · 중앙종회의원 · 주요 기관장 · 신행단체장 등 종단 핵심지도부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백년대계본부의 대중공사는 '불자 감소'와 '출가자 감소 및 고령화'를 대주제로 진행된다. 현재 한국불교의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대에 부응하는 사찰과 종단 등 한국불교 전반의 백년대계 수립을 위해 대중 공의를 모을 계획이다.

불자 · 출가자 감소 주제로
조계종단 백년대계 모색
본부장 인선에 관심 집중
미래세대委 출범 가시화

또한 백년대계본부 운영위원회는 4월 중으로 2017년 제1차 사부대중공사와 백년대계본부 출범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소는 서울 조계사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년대계본부는 △불교사회연구소 △종책개발위원회 △대중공사추진위원회 △미래세대위원회 △화쟁위원회 등 5개 산하조직으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종책개발위와 미래세대위원회는 꾸려지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본부는 출범식 전까지 공석인 본부장을 선임하고, 미조직 위원회를 갖추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년대계본부장으로는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나 스님의 완강한 고사로 인해 본부장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크게 거론되는 인물이 없어 본부장직을 누가 맡게 될지는 주요 관심사다. 종책개발위는 중앙종회의 협조와 참여를 중심으로 갖춰지며, 미래세대위원회는 준비위원회를 꾸려 본부 출범 후 적합한 인사 물색에 나설 전망이다. 미래세대위원은 불교계 인사보다는 일반사회에서 한국불교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조계종은 지난 1월 종단 미래전략 수립 등을 위해 '백년대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을 제정하고, 사무총장에 일감 스님을 임명했다. 윤호섭 기자

대선주자에 '통합' 당부

자승 스님, 안철수 · 남경필 후보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예방을 받고, 서로 통합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

이 자리서 안 의원은 "많은 시민을 만나면서 치유가 필요한 때라는 걸 느꼈다. 통합은 생각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에 자승 스님은 "인위적 통합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 일으킨다. 진정한 통합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시작된다"며 "촛불과 태극기 모두 애국의 다른 표현임을 서로 인정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중도적 입장으로 중심을 잡아 갈등이 치유되도록 발품을 팔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튿날엔 바른정당 대선주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조계종을 예방했다. 남 지사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원장스님께서 통합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지금은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로 묶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진정한 통합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운주사 석불 · 석탑'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동아시아 희귀한 공간" 평가


화순 운주사 와불.

화순 운주사 석불 · 석탑군이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제출한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이 최종 등재됐다"고 3월 13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16건의 유산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오르게 됐다.

이번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에는 10~16세기말까지 조성된 매우 다양한 형태의 석불상과 석탑 그리고 별자리나 칠성신앙과 관련되는 칠성석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공간적 조성과 형태의 다양성, 조형성은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이다.

또한 운주사는 다른 불교사찰과 달리 불교적 요소와 외에도 밀교, 도교적 요소가 강하게 반영돼 있으며, 사찰 경내에 불상과 불탑의 석재를 채굴했던 채석장과 석재 운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도 매우 특이하다.

문화재청은 2014년 전라남도로부터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제출받았으며, 이후 2015년도에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에서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으로 유산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등재신청서 수정과 보완을 거쳐, 올해 1월 24일 해당 유산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잠정목록 등재가 결정됐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세계유산적 가치가 있는 유산들을 충분한 연구와 자료 축적 등을 통해 앞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도록 하려는 예비목록이다. 잠정목록에 등재된 후 최소 1년이 지나야만 세계유산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문화재청은 "향후 전라남도 · 화순군과 함께 유산 가치 발굴을 위한 학술연구와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추진하여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포교 스펙트럼, 태아 · 영유아까지 넓힌다

조계종 포교원, 태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시작

조계종이 미래세대 포교 영역을 확장해 태아 및 영유아 포교에 나섰다. 인간이 받는 최초의 교육이자 가장 근본적인 교육인 태교부터 영유아 교육 및 신행활동까지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최근 태교 및 영유아 인성교육프로그램 '명상과 예술놀이로 부모 자녀의 행복한 마음정원 가꾸기'를 개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태교 △수기(수계) △부모와 함께하는 영유아 인성교육 △태교 및 영유아 프로그램 위한 사찰 지침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불교태교의 실천방안으로 임산부에 맞는 팔정도 수행법을 제시하고, 호흡 · 알아차림 · 조약돌 명상, 행복한 감각태교, 부모은중경 사경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태아와의 교감을 높인다. 또 자연과 교감하는 불교적 예술놀이를 통해 생명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는 데 주목한다. 가족과 함께 부르는 동요 중 '마야부인의 잉태', 찬불가 '부처님 마음일세', 개사곡인 '엄마의 마음일세' 등도 눈길을 끈다. 포교원은 현재 인성교육 프로그램 자료집 및 CD를 조계종 전법중심도량 130여 곳 중심으로 배포한 상태이며 사찰 법회 등에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은 "불교의 세대 간 전승과 미래세대를 위한 방안인 태아 및 영유아 포교는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젊은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 실질적으로 사찰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교수행법 접목해 심성 순화
주요사찰 영유아 포교 나서
"어린이 포교 활성화도 기대"

이 같은 움직임에 앞서 국내 주요사찰은 태아 및 영유아 포교에 나서고 있다. 가장 먼저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올해부터 연간 한차례 열리던 기존 유아수계법회를 매월 진행하는 영유아 돌맞이 마정수기법회로 확대했다. 마정수기 법회에는 100일부터 돌 직전 아기들이 참여한다. 동참한 아기들에게는 어린이용 오계가 내려지며 미륵전 아기 인등을 1년간 무료로 밝힌다. 반응은 폭발적이다. 2월 25일 처음 열린 마정수기 법회에는 20명의 영유아들이 수계를 받았다.


지난달 열린 봉은사 마정수기법회. 주지 원명 스님이 법회에 참석한 아이 정수리에 마정수기를 하고 있다.

차혁진 봉은사 교무팀장은 "가족이 함께 오는 사찰을 목표로 포교의 범위를 계속 넓히고 있다. 영유아 포교는 부모세대 포교도 함께 진행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도 4월 9일 일요일 영유아 마정수기 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계사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열어 왔지만 영유아까지 확대한 것은 처음이다. 조계사 측은 지난해 4월 대웅전 앞마당에 수유실을 마련하는 등 영유아 부모를 위한 포교에도 나선 바 있다.

이수경 동국대 불교아동보육학과 교수는 "태교는 심신수행의 방법으로 산모의 노력은 스님들의 수행과 다름없다. 즉, 태교 방법으로 불교 수행이 잘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영유아 포교 또한 부처님 사상과 수행방법을 통해 아동기 바른 종교성과 사회성을 확립하고, 또한 가족포교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속적인 포교방법 개발과 보급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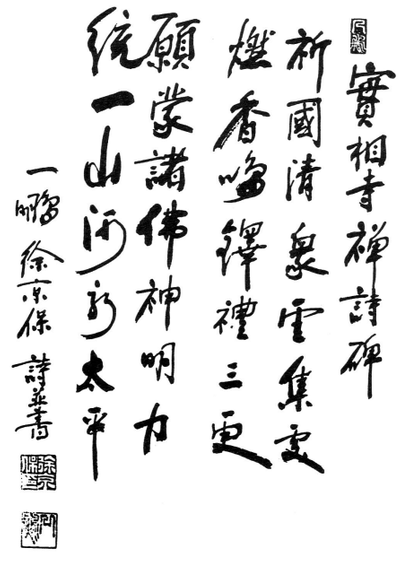
일붕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 제3기 범음 범패 학인 모집

세계전법과 중생제도에 이바지 하는 일붕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이 진리와 중도사상을 바탕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행으로 세계인류평화와 불교중흥에 기여할
유능한 불교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3기 범음범패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육과목
① 초급 : 예경의식 (도량석부터 ~)
② 중급 : 상용의식 (불공 및 제반의식)
③ 고급 : 전통의식 (시련 ~ 49재 회향까지)
특별의식 (점안식 外 기타의식)
작법 : 바라무, 나비무
※ 특강 : 전통극락무, 법고(무), 연주 모듬북 등..

■ 교육과정 (1년 수료, 2년 졸업)
- 개 강 : 2017년 양력 4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일붕선원
- 교육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4시
- 교육대상 : 승려, 법사, 재가불자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증명사진 1매
- 접수기간 : 2017년 4월 10일까지
- 수 강 료 : 입학금 및 교재비 포함 15만원(수강료 별도)
※ 특혜 : 졸업 후 재가불자 법사, 포교사 자격부여(본종단)



■ 문 의 : 02)991-8175 교무처 / 010-8514-7468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신영동 93-1) 일붕선원 교무처